

또 다시 들려오는 '산은 산, 물은 물'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불교신문 기획
 원택 스님 역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6천원



성철 스님(사진)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순례기다. 생가부터 시작하여 열반지까지 스님의 주석처 25 곳을 돌아봤다. 불교신문에 '성철 스님의 자취를 찾아서', '성철 스님과 나의 법연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기획기사를 수정하여 다시 엮은 것이다. 두 기획기사는 2012년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6년간 출간 수행자 신분으로 성철 스님을 모신 바 있는 이진두 논설위원이 집필을 맡았다.

나절이면 당도할 수 있었습디다. 그러나 '성철 스님이 걸어간 반세기의 깨달음의 길'과 '차를 타고 스쳐가는 반나절의 길'의 명백한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습디다."며 스님은 걸어온 길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원력 아래 일제강점기, 해방, 6.25 전쟁, 근대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역사 속을 지나온 '외길'이었다고 말했다. 순례자마다 스님의 기록들이 육신만큼 남아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성철 스님은 해인사 도량에서 법의 깃발을 온 누리에 드리우고 평생토록 이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대중에게 회향하고 가셨다. 그러나 조금도 섭섭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스님을 보낸 것도 아니요,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스님의 육신은 가고 없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마른 땅에 새끼이 돌게 하는 한줄기 비가 되어서 갈뎡뎡문을 펼치고, 또 때로는 지상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덮어 주는 함박눈이 되어서 자비법문을 펼치고 있다."

책은 성철 스님이 경북 영천 팔공산 은해사 운부암에서 평생의 도반 향곡 스님을 만난 이야기, 충북 보은 속리산 범주사 북천암에서 지원하여 공양주를 하신 이야기,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대학생들과 소중한 법연을 이어 가신 이야기 등 다양한 일화가 실려 있다.

"원각(圓覺)이 보조(補照)하니 / 적과 멀이 돌이 아니라 /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 보고 듣는 이 밖에서 진리가 따로 없으니 / 시회대중은 알겠는가?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스님의 흔적을 찾아 걷고 나면 이미 들었어도 또 다시 들려오는 스님의 종소리 같고, 풍경 소리 같은 법문과도 함께 했음을 깨닫게 된다.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던 2012년부터 성철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돌아보는 순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듯, 대중들은 여전히 성철 스님의 뜻을 기리려는 열기로 가득하다. 이 책 또한 성철 스님의 탄신지로부터 열반지까지 수행도량 25곳을 돌며 스님의 발자취를 좇는 순례길 이야기다. 책은 독자들에게 성철 스님 순례길 25곳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길에서 성철 스님이 남긴 유언과 사상을 조화롭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아이와 '아이'였던 어른이 읽어야 할 불교동화

우리집 강아지 세리

이명경 지음 | 김애린 그림 | 아이들판 | 9천5백원



이야기는 초등학교 5학년 가섭의 시집의 동화다. 가섭의 부모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갖기를 원했다. 딸을 먼저 낳은 뒤 아들을 낳고 싶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아들을 먼저 낳았다. 그 아들이 성가스럽다. 딸을 먼저 낳고 싶었던 가섭의 부모



리를 부르며 한참을 앓아 있곤 했다. 그리고 보름 뒤에 딸 아난이 태어난다. 그날부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아난에게만 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섭은 세리 생각이 간절하다. 세리가 보고 싶어 밤마다 세리의 사진을 안고 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꿈에 세리가 나타난다. 세리는 별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가섭이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한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인연 속에서 돌고 돌아, 서로 다 얽혀 있어. 인연 따라 끌림이 되고 도는 거야. 수십 억 년 전부터 꼭 그랬어."

세리와 대화를 통해 가섭은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착한 심성의 가섭

은 어린 나이에 하늘의 소리를 듣고 느낄 줄 알게 된다. 그런데 무럭무럭 잘 자라던 아난이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죽게 된다. 상심한 엄마는 아난의 죽음이 자신의 오만함에 대해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깊이 참회하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엄마에게는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린다. 곧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죽은 아난을 꼭 빼앗은 예쁜 딸을 얻게 된다. 가섭은 알게 된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세리의 딸뎡을, 그것은 곧 다시 태어난 여동생이 세리의 환생이라는 사실이다.

책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희의 저자는 <어린이왕자>를 늘 품고 살았다. <어린이왕자>의 이야기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장미꽃과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별을 떠나서 어린이왕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그 '관계'는 다름 아닌 인연인 것이고 (우리집 강아지 세리)는 어린이왕자를 품고 살아온 저자의 상상력에 부처님의 인연법을 더한 동화다. 또한 그 인연법의 전개에서 '마음공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일러준다.

책은 생각이 깊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 어린이왕자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책은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이 먼저 보아야 할 동화다. 동심의 시절을 분명히 지나왔음에도 그 시절을 까맣게 잊고 아이들을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아이'였던 어른들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읽어야 할 동화다.

박재완 기자

일상의 사소한 것에 삶의 힌트가...

삶의 힌트

이진기 히로유키 지음 | 채수환 옮김 | 지식여행 펴냄
 1만4천9백원



책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일본 문학계의 거장 이진기 히로유키가 인생의 통찰과 해안을 이야기하는 <타력>과 <대화의 한 방울>을 잇는 에세이다.

인생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꼭 살아야 할 가치가 있을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오직 '나' 뿐이다. 겉으로는 맑고 풍요롭고 쾌적한 시대.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눈뜨고 보기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다. 점점 잔혹해지는 집단 따돌림.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자살. 무너져버린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밝은 것, 희망을 가득 찬 것, 기쁨을 가득 찬 것, 그런 다양한 것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돌아보곤 합

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 있다는 사실, 그 '살아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 즉 인간의 가치에 대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주어진 인생을 충실히 보내고, 세상과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빛나는 별처럼 살아야 한다."

책은 숨 막히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인생의 '힌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의 대수롭지 않은 일, 기뻐하고 슬퍼하고 떠들고 망설이고 선택하고 그리워하고 꿈꾸고 잠드는 일, 그런 사소한 것에서 인생의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뻐하는' 것 못지않게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외로울 때는 외로워하고, 슬플 때는 제대로 슬플 수 있어야함을 일깨운다. 어두운 기분이 들었을 때는 그냥 넘기지 말고, 어두운 기분의 근원을 직시해야 하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며, 나의 인생을 사랑하기 위한 장, 지금의 나를 믿기 위한 장,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장,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장,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한 장으로 나누어 살았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4 ~ 7/3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영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공리
4	그런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애펜터
7	살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8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쌤애펜터
9	슬프고 웃긴 사친관	아산 브람	김영사
10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물북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불조정맥 제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78대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성불사 국제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이신 대원 선사님의 저서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의 한국편 법문과 참선수행**이 있습니다. 대원 선사님의 법문을 직접 들어 깨달아 생사해탈할 정법의 인연을 맺으십시오.

* 모든 종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5일(목) 오전 10시 ~ 8월 18일 (일) 오후 2시
 장 소 :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번지)
 회 비 : 1인 10만원 / 가족할인 1인당 8만원, 어린이 5만원
 준 비 물 : 세면도구, 간편복장 (발우 대여), 기타 준비물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전 화 : 031)534-3373 / 010-6431-8805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여름수련회로 인해 8월 전국법회는 쉽니다.

“모든 현상에 동일시 되거나 속지 말고 오직 ‘보는자’로 남아서 지켜보라”

반야심경과 해탈열반시(解脫涅槃時) 주시자, 관자재보살로 사는 법

동암스님 지음
 신국판 | 2도량과 | 216쪽 | 12,000원

‘자아’의 두꺼운 껍질 뚫고 관찰자·순수의식 발견하는 길

- 궁극적인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 '달'이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ego)'의 두꺼운 껍질을 넘어 관찰자, 순수의식으로 말해지는 우주와 인간의 바탕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오온(五蘊)이라는, 자아를 이루는 것들의 두꺼운 껍질을 뚫어 보고, 그 바탕에 있는 관찰자의 상태를 우리 속에서 확인하는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신과 진문의 김자성 박사(동해 동인병원)
- 동암 스님은 당시의 수행과 관찰을 통해 진실에 근접한 리얼리티를 풀어놓았다. 그는 열정적인 탐구, 섬세한 관찰, 릴렉스한 사색 그 자체이다. 길에 있으면 그 열정적인 에너지 장에 빠져들어 누구나 어느새 관찰자가 되고 사색가가 되고 명상가가 된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긴장하지 않은(relaxed) 주시(注視)와 관찰만이 성불을 위한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삼척문화방송 김상호 아나운서

비물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long (02)2632-8739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님바나 **와제의 인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뱃목이 될 것이지요. 범부중생에게는 갈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대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 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원 전제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산 수안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뉘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님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